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보다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9.10.22.(화) 총 4매(본문 3)	
담당 부서 도로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이상헌, 사무관 김호, 직원 한인석 ·☎ (044) 201-3875, 3881, 3886	
간선도로과	담 당 자	·과장 이정기, 사무관 정경인, 주무관 윤순규 ·☎ (044) 201-3888, 3891, 3894	
보 도 일 시	2019년 10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10.22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

- 도로사업 14건, 타당성평가 · 설계 등 단계적 추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올해 초('19.1)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**'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' 대상 사업(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)의 신속 추진을 위해 '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**한다.

○ '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'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**세종-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,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**(약 6.0조 규모)이며,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.

사업구간	연장(km)	사업유형	총사업비(억원)	비고
고속국도 신설				
세종-청주 고속도로	19.2	4차로 신설	9,731	
부산신항-김해 고속도로	14.2	4차로 신설	9,788	
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	14.5	4차로 신설	7,240	
제2경춘국도(남양주-춘천, 국도 46호선)	33.7	4차로 신설	9,626(추정)	
서남해안 관광도로				
신안 압해-해남 화원, 국도 77호선	13.4	2차로 신설	5,005(추정)	
여수 화태-백야, 국도 77호선	11.7	2차로 신설	5,269(추정)	
국도 위험구간 등(道별 1건)				
정선 임계-동해 신흥, 국도 42호선	17.4	2차로 개량	1,082	
천안 동면-진천, 국도 21호선	13.4	4차로 확장	2,356	
태안 고남-창기, 국도 77호선	22.3	4차로 확장	1,716	
경주 농소-외동, 국도 7호선	5.9	4차로 신설	1,896	
산청 신안-생비량, 국도 20호선	9.2	4차로 확장	1,793	
순창 인계-쌍치, 국도 21호선	24.0	2차로 개량	1,687	
곡성 석곡IC-겸면, 국도 27호선	23.1	2차로 개량	1,460	
이천 장호원-여주 가남, 국도 3호선	9.1	4차로 신설	1,964	

○ 그간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**‘사업계획적정성 검토’를 진행(‘19.3~, 기재부)하였으며,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**되었고, 나머지 3건*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.

* ‘제2경춘국도’, ‘신안 압해-해남 화원’, ‘여수 화태-백야’

□ 국토교통부는 ‘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’(도로사업)의 추진을 위해 **‘20년 예산(정부안)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, 올해에는 ‘사업계획적정성 검토’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**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하였다.

○ ‘사업계획적정성 검토’가 완료된 11건 중 **고속도로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착수할 예정**이며, 국도건설사업 8건 중 **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**이다.

-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국도 7호선 ‘경주 농소-외동’ 사업은 10월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,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‘산청 신안-생비량’ 사업은 국회에서 ‘20년 예산이 확정(‘19.12)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제2경춘국도 등 ‘사업계획적정성 검토’를 진행 중인 3건도 **‘사업계획적정성 검토’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**이다.

□ **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**은 “‘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’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,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**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.**”면서,

○ “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,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,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**‘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’을 추진해 나가겠다.**”고 말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정경인 사무관(☎ 044-201-38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‘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(도로사업)’ 위치도